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7호

(2025/겨울)

제1저자. 12130584@dankook.ac.kr

교신저자. s424902@snue.ac.kr

류영모의 기독교적 『중용』 해석

생명 사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황종원(단국대학교 · 철학 · 교수)

지준호(서울교육대학교 · 철학 · 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5.12.57.247>

I. 머리말

■ 한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종교적 사유는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그래서인지 동학 계열의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기독교 계열의 류영모, 함석헌,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아우르는 장일순 등의 사상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저술된 한국 근현대 철학사에서 빈번히 집중 조명되곤 한다.* 그리고 위 사상가들은 하늘님, 한울님, 한옹님, 하느님 등으로 칭하는 신(神)의 내재성을 공통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양 전통의 유불도(儒佛道) 사상과도 상당히 친연성이 있다.

위 두 계열 중에서 한국적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는 류영모의 경우는 훨씬 더 자각적으로 동양 사상을 섭렵했다. 류영모는 동생이 사망한 20세 무렵에 보수 기독교 신앙에 회의감을 느끼고 노자와 불경을 읽기 시작했다.** 도가와 불교에서 그

* 이규성의 『한국 현대철학사론』(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에서는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함석헌의 사상을 비중 있게 논했고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엮은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동녘, 2015)에서는 최제우와 함석헌의 사상을 다루었다. 전호근의 『한국철학사』(메멘토, 2015)에서는 근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최제우, 류영모, 함석헌, 장일순을 다루었고, 유대철의 『대한민국 철학사』(이상북스, 2020)에서는 한국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함석헌, 류영모, 장일순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 박영호, 『다석 류영모: 우리말과 우리글로 철학한 큰 사상가』, 두레, 2009, 36쪽.

는 무(無)와 공(空)의 의미를 깊이 숙고했고, 그 결과 어느덧 하느님을 ‘없이 계신 하느님’이라 하고, 우주를 ‘텅 비어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가득하다’는 뜻에서 ‘빈탕한데’라 칭했으며, 이 하느님의 일을 존재론적으로 내재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나’, 즉 ‘제나’의 탐진치(貪瞋痴)를 부단히 버리는 훈련을 해 그 참 자아인 ‘얼나’를 자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양 전통의 시선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 한 류영모가 우선 불교와 도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까닭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며, 노자의 도덕론(道德論)에는 기독교의 하느님을 동양의 형이상학적 사유로 설명할 수 있는 보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류영모는 유학, 그중에서도 공맹 유학과 『중용』의 사상도 나름대로 깊이 섭렵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유학의 천론(天論), 덕론(德論),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강렬한 실천 지향성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즉 유학은 기독교와 유사하게 하늘을 만물의 근원이라 지칭하고, 하늘의 본질이 인간에 덕성(德性)으로 체현되어 있다고 하여 영(靈)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자신의 신관과 비슷하며, 중용(中庸), 성(誠), 지인용(智仁勇) 등의 덕행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늘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점 역시 하느님과의 영적 연결을 바탕으로 생활 실천을 중시하는 자신의 사상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류영모가 1955년부터 쓴 일지(日誌)나 YMCA 연경반(研經班) 강의를 통해 보여준 주된 사상적 노력은 기독교 신앙과 유불도 사상 간 대화와 소통, 즉 “사교(四敎) 회통

사상”이었다.* 그래도 이 ‘사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밑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간 그의 사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독교 신학자, 종교학자, 서양철학 연구자들이 해왔다. 류영모에게서 사사(師事)한 김홍호와 박영호는 그의 어록과 일지를 정리하고 풀이했고, 다석 학회를 이끈 정양모는 그의 일지를 현대 한국어로 윤문하고 간략히 해설했다.** 다석 사상 관련 연구 논저도 적지 않다. 종교학자 이정배, 하이데거 연구자 이기상, 칸트 연구자 김진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연구 성과는 다석 사상 자료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그의 동양적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동양철학 연구자의 시선으로 다석 사상을 탐구한 연구물이 매우 적다는 점은 아쉽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사뭇 다른 시선에서 류영모의 사상을 바라볼 수 있기

* 강돈구, 「류영모 종교 사상의 계보와 종교 사상사적 의의」,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동양적 기독교 이해』, 숲, 2002, 376쪽.

** 김홍호는 예스러운 한글 시와 한시로 가득한 방대한 분량의 『다석일지』를 빠짐없이 풀이한 『다석일지 공부』(전 7권, 숲, 2001)를 저술했다. 박영호는 『다석 류영모 어록』(울리브나무, 2019), 『다석 류영모 명상록』(동연, 2022), 『다석 중용 강의』(아로파, 2024), 『노자와 다석』(교양인, 2013), 『다석 씨알 강의』(교양인, 2015) 등을 저술했다. 정양모는 『다석일지』 가운데 한글 시를 윤문한 『다석일지』(전 3권, 길, 2025)을 저술했다.

*** 이정배는 『빈탕한데 맞춰 놀이』(동연, 2011) 등의 저술에서 주로 류영모의 얼 기록론의 생명신학적 의미를 밝혔다. 이기상은 「“태양을 꺼라!” 존재 중심의 사유로부터의 해방」 등에서 서양철학의 이성 중심적, 인간중심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며 그 대안적 사유를 다석 사상에서 찾았다. 김진은 『다석 류영모의 종교사상』(UUP, 2012)에서 류영모의 신론, 우주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등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나아가 그의 사상을 서구 종교다원주의자 라이문도 파니카의 우주신인론과 비교하기도 했다. 강돈구, 「류영모 종교 사상의 계보와 종교 사상사적 의의」,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동양적 기독교 이해』, 숲, 2002, 376쪽.

**** 그래도 동양철학 연구자 가운데 강진석은 류영모 사상 관련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다석 류영모 사상의 중문 번역과 이에 대한 고찰(1)」(『중국학보』 87집, 한국중국학회, 2019), 「다석 류영모의 동서양 회통 사상 연구」(『동양철학연구』 117집, 동양철학연구회, 2024) 등 4편의 다석 사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때문이다. 기존의 서양 학문 연구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학, 서양 종교학, 서양철학의 주류 관점에 비해 다석 사상에 어떤 새로운 의의가 있는지를 조명했다. 이외는 달리 동양철학 연구자들은 그의 ‘동양적’ 기독교 이해가 어떤 점에서 ‘동양적’인지 좀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그 시도가 어떤 점에서 동양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그러면서도 ‘동양적’인 어떤 유의미한 관점을 약화하지는 않았는지도 음미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글에서는 류영모의 기독교적 『중용』 해석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지 밝히고, 그의 이 작업이 기독교와 유학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유익을 가져다주는지, 혹 그의 해석이 『중용』이 본래 포함하고 있던 중요한 의의를 놓친 것은 아닌지 그의 생명 사유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류영모는 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중용』이야말로 기독교와 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고전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그 특유의 예스러운 한글로 완역할 만큼 『중용』을 중시했다.* 본 연구가 『중용』을 주요 탐구 텍스트로 삼은 이유이다. 그밖에 이 연구가 류영모의 생명 사유를 중심 문제로 삼으려는 까닭은 생명이야말로 류영모가 무척 중시했거니와 기독교와 유가, 더 나아가서는 도가, 불교에서도 공통되게 중심에 놓고 사유하는 개념이어서 이질적인 사상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주제로 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 박영호의 술회에 따르면 류영모는 1949년 무렵부터 함석헌, 김홍호 등이 참석한 『중용』 강의를 자택에서 했으며, 이때의 강의를 기초로 1967~1968년에 광주에 머물 때 『중용』을 우리말로 완역했다고 한다. 류영모 번역·강의, 박영호 풀이, 『다석 중용 강의』, 아로파, 2024, 5쪽.

**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자신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말한다. 신유학에서도 생(生)은 인(仁)의 형이

II. 중용(中庸): ‘가온씩기’ 혹은 ‘줄곧 돌림’

『중용』에서 ‘중용’이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듯, 류영모에게도 그것은 그의 인간론 내지는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나의 인생관은 가온 씬(中庸)이다. 절대 하느님의 말씀인 열(성령)을 받아 쓰는 것이 중용이다. 참나(얼나)는 속의 속이다. 속의 속, 곧 가온(「、」, 中)인 참나(얼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맘속의 속에 있는 것 같다. 참나인 가온(中, 열)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용(中庸)이다.*

그는 중용을 ‘가온 씬’이라 번역했다. 류영모의 한글 신조어는 함축적 다의적이라 그 뜻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 위 인용문의 내용에만 근거해 보면, ‘가온 씬’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열’,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말씀이 된 하느님의 뜻을 생각으로 떠올려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는 자신의 인생관인 이 ‘가온 씬’을 다른 곳에서

상학적 함의를 설명하는 키워드이다. 그리고 두 가르침 모두 생명의 이기적 자기 확장과 타자 생명의 대상을 부정한다. 이 점에서 생명은 종교 간 대화의 중심 개념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한국의 생태철학자 이준모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담론이 중단된 것은 오늘의 생태계 위기를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중심 개념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종교들은 생명을 한가운데에 두고 본질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터이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종교생태학으로』, 『종교생태학』, 문사철, 2012, 73쪽.)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31쪽.

는 ‘가온 짝기’, ‘곤’ 등으로 표기하곤 했다.* ‘곤’의 ‘ㄱ’은 하늘을 ‘ㄴ’은 땅을, ‘丶’는 인간 마음 안의 얼을 뜻한다. 우주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우주의 “일점영명(一點靈明)”, 즉 광대한 우주 안에서 반짝이며 명멸하는 별빛 같은 존재라는 함의가 있다. 또 이 ‘영명’, 즉 ‘얼’을 ‘곤’이라 표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바로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얼’의 힘에 의지해 신의 뜻에 적중(的中)하며 삶의 길을 걸어‘가는(곤)’ 여정에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 ‘중용’이란 인간이 내적인 ‘얼’의 힘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행위를 함을 뜻하는데, 그가 ‘중용’ 개념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용』 1장의 몇 구절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였다.

하늘 뚫린 줄(命)을 바탈이라 하고, 바탈 타고난 대로 살 것을 길(道)이라 하고 디디는(修) 길 사모칠(之) 것을 일러 가르치는 것이니라.**

‘하늘 뚫린 줄’은 천명(天命)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의 생명, ‘목숨’은 마치 ‘줄’처럼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즉 인간의 생

* 예를 들어 『다석일지』 1968년 7월 14일 자 기록에 “너 게, 나 남, 저 제, 곤 가온짜기입니다.”라는 시가 있다. 쉽게 풀면 “너, 하느님은 타계에 계시고, ‘나’는 ‘남’인 땅에서 났습니다. 저기 계신 ‘저’ 분과 여기 있는 ‘제’ 나, 가온짜기 하며 살아갑니다.”라는 뜻이다.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35쪽.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 ‘명(命)’을 ‘뚫린 줄’이라 해석한 까닭은 박영호의 보충 설명에 따르면 명(命)을 파자(破字)해 이해한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명(命)은 “합(合)과 절(節)로 되어 있는데, 숨은 관(口)으로 하나로 이어졌다는 뜻글자이고 口은 규칙적인 법칙을 뜻한다”는 것이다.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명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 뿌리를 두고 있어, 존재론적으로는 하느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느님과 언제나 연결될 수 있는 내적 근거는 성(性)에 있는데, 류영모는 이를 ‘바탈’이라 명명한다. ‘바탈’은 일차적으로는 내 마음속 ‘바탕’, ‘본성’, ‘덕성’을 뜻하지만, 그것은 ‘받아서 할’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얼’을 바탕으로 삼아, 부단히 하느님의 뜻과 합치되는 행위를 할 소명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바로 이 얼에서 샘솟는 생각대로 사는 데서 인간다운 삶의 ‘길(道)’을 걸어갈 수 있다. 물론 그 여정은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한 ‘자갈밭’이기 쉽다. 그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닦아나가는 과정이 다름 아닌 교육이고 수도(修道)이다.

위에서 생명을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그 정수가 인간 안에 ‘얼’로 내재한다고 했지만, 사실 생명에 ‘얼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몸 생명’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얼’은 없고, ‘몸’과 그에 부속된 ‘마음’만 있다고 여긴다. 류영모는 사람들의 이러한 자기 인식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의 근원이라 진단하며 이 ‘몸 나’에 대한 의심을 수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 그런데 이 세상이 괴로울 때면 나를 의심하게 된다. 나를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이 나(自我)라는 게 뭐냐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된다. 나를 없애버리고 싶어진다. 그래서 자살도 한다. 괴롭다 하면서도 좀 재미를 찾고 할 때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석가가 6년간 고행을 한 것은 나를 의심해서다. 나를 의심하다가 이 ‘나’라는 것이 참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영원 절대한 참나(얼나)를 깨닫는다. 그게 성불(成佛)하는 것이다.*

심신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실존적 절박감에서 출발해 이 몸과 마음의 온갖 현상이 다 영원하지 않고, 실제로는 부단히 생멸하는 것, 따라서 덧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마침내 내면의 영원한 ‘참 나’를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류영모에게 석가모니의 불성과 기독교의 영성, 그리고 유학의 덕성은 큰 틀에서 통하여, ‘얼나’로 귀결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나는 참나가 아니다. 하느님이 보낸 얼나가 참나이다. 아버지가 낳은 몸나는 죽으면 흠 한 줌이요, 재 한 줌이다. 얼나는 하느님의 생명인 얼로 아무도 헤아릴 수 없고 무엇에도 견줄 수 없다. 내가 얼숨을 쐬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인 얼(성령)을 숨쉬어 얼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 명상으로 이루어진다. 기도 명상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얼은 몸나의 짐승 성질(獸性)을 다스리는 권능(authority)을 지녀 짐승 성질을 이김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한다.**

* 류영모, 위의 책, 38~39쪽.

** 류영모, 위의 책, 11~12쪽.

류영모의 ‘몸나’ 관념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몸나’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화하고야 말 덧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몸나’를 영원한 자아인 듯 착각하며, 이 자아에서 파생하는 탐진치(貪瞋痴)에 매여 헤어나지 못한다. ‘몸나’가 이렇듯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의식을 낳는다는 점에서 그는 이를 ‘제나’라고도 부른다. 혹은 ‘짐승 성질’이라고도 칭하여 덕성을 망각한 인간을 금수에 가까운 자라고 말한 맹자의 발언을 상기시킴으로써 유학 또한 자기중심적 자아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암시한다. 사람이 기도나 명상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때면 바로 그 자기중심성을 초극하는 정신적 힘이 마치 숨을 쉬듯 부지불식간에 부단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실은 불교와 유학뿐만이 아니다. 노자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비판하여 무욕(無欲), 무위(無爲)의 태도로 살라고 가르치며, 기독교 역시 늘 자기의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느님 섬김을 삶의 중심에 놓으라고 권면한다. 어떤 세계적인 종교나 사상도 인간의 이기성을 부추기지 않으며, 반대로 자기중심성을 뒤흔들 수 있으면 최대한 초극하여 각기 궁극적 실재라 부르는 그것에 합치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천주교인이면서 기독교와 노자, 동학, 불교 등의 회통을 시도한 무위당 장일순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 ‘보는 자리’가 중요하거든. 그 자리에서 세상 만사를 들여다보시는 분을 수운(水雲)이나 해월(海月)은 ‘한울님’이라고 했고, 예수는 ‘아버지’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언제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라든가 나무아
미타불이라든가 하는 염(念)을 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로, 부처님의
자리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행하고, 사물을 보되 그 자리에서 보
자는 그런 말씀이지.”* 박영호는 류영모도 그렇게 생각했음을 다
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했다. “짐승인 제나(自我, ego)로 죽고 하
느님 아들인 얼나(πνεύμα, Dharma, 道, 德)로 솟나라.”**

이렇게 류영모의 생명 사유에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얼 생
명과 몸 생명이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고 그가 몇몇 사람들이 오해하듯 몸을 죄악시키는 영지주의자
(Gnostic)였던 것은 아니다. 이정배가 해명했듯 그가 “불교인들이
선호하는 자아(ego) 개념 대신 몸이란 표현을 많이 쓴 것은 수신
(修身)에 초점을 둔 유교적 생명철학으로 인함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에서의 자기 수양이란 이성적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은 그래서 더욱 오랜 시간을
요하는 몸에 대한 공부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몸의 자기중심
성을 초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욕망의 절제가 불교 수행자의 수
준에 육박하기는 했어도 그는 결국은 유학자들처럼 수신을 통한
몸의 선용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지향 속에서 그는 중화(中和)를 다음과 같이 해석
했다.

*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삼인, 2003, 23쪽.

** 류영모, 『다석 증용 강의』, 11쪽.

*** 이정배, 「다석 류영모의 동양적 기독교 이해와 얼 기독교론」, 『다석 류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솔,
151쪽.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안 난 대로를 뚫림(中)이라 하고, 나뒹굴린 줄 골라 맞춘 것을 곱다(和) 하니라. 뚫림(中)은 온누리(天下) 한 밑둥(大本)이요, 곱은(和) 것이 온누리 사무치는(達) 길이다.*

류영모의 개념적 틀로 보면 희로애락은 몸 생명에 속한 감정이다. 이 감정이 생겨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未發) 사람의 마음은 얼 생명을 자각하여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자각적 상태에 있다가 감정이 생겨날 때면(已發)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뚫린 줄(中)’, 즉 하느님의 뜻에 통하는 얼을 기준으로 삼아 음을 골라 조율하듯, 그 기준에 딱 맞춘다. 이렇듯 하느님의 뜻과 하나로 연결된 얼(中)은 만유의 근본으로 온 세상에 편재해 있으며, 이 얼의 기준에 조율되어 부합하는 행위는 마치 고운 소리를 내듯 온 누리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류영모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자. “내 마음은 내가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로애락 따위는 불태워야 한다. 곧 희로애락을 화합시켜 나가는 가운데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본디 빈 데서 이루어진 그것이 중화(中和)의 길이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류영모는 장재의 태허(太虛)를 ‘빈탕한데’라 칭하며, 그 하느님의 텅 빈 모습이 인간에게서는 무욕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그는 나의 감정 등이 하느님의 뜻에 조율되는 ‘중화’의 길이 ‘빈 데’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이다.

* 류영모, 『다식 중용 강의』, 47~48쪽.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 류영모, 위의 책, 48쪽.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이렇게 중화(中和)를 하느님에 뚫린 얼의 기준에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행위로 해석함으로 인해 치중화(致中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뚫림과 곱음이 같으면(致中和) 하늘 땅이 자리 잡고, 잘못이 자라나느니라.*

그는 ‘치중화’를 ‘중화에 이른다’고 해석하지 않고, ‘뚫림(中)과 곱음(和)’의 일치(致)라고 대단히 이채롭게 해석했다. 박영호가 이 해석은 「요한복음」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10:38)라는 구절과 같은 뜻이라고 한 말을 참조한다면, 이 구절은 하느님과 늘 뚫려 연결된 인간이 내면의 얼에 자신의 행위를 늘 조율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자신 안에 하느님 얼이 있고, 하느님 안에서 자신이 그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단히 자각하는 사랑과 평화의 ‘고운(和)’ 삶을 산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중용』의 원뜻과는 크게 다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용』도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인합일(神人合一)적 해석도 ‘치중화’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이해로 용인될 수도 있겠다. 다만 이렇게 치중화를 하느님의 뜻에 조율하는 인간의 행위로 해석할 경우,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양육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를 의식한 듯 박영

* 류영모, 위의 책, 50쪽.

**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호는 이 구절을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우주(천지)가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만물이 생멸(生滅)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부언했는데, 이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때, 부단히 생멸 변화하여 덧없게 보이던 우주 자연도 의미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인 듯하다. 그런데 만약 류영모도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했다면 ‘치중화’의 실천적인 의미를 너무 왜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치중화’를 신의 뜻, 즉 내면의 열 생명과 인간 행위 사이의 일치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일치된 인간의 행위가 천지가 자리 잡아 제 기능을 발휘하고 만물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데 실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류영모의 생명 사유의 틀 안에서 보더라도 이는 열 생명이 몸 생명을 가꾸어 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과 이치상 통한다. 우주 자연을 생멸 변화하는 덧없는 세계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열 생명을 더욱 깊이 자각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자연 생명을 가꾸고 돌볼 사명이 있다. 아쉽게도 류영모의 생명 사유에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치 않다.

*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 예컨대 황종원은 ‘치중화’를 다음과 같이 생태주의적으로 해석했다.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아끼고(仁), 천지를 도와 만물을 기르는 시의적절한(時中) 방법을 체득하며(知), 정성을 다해 천지와 협업하며 동고동락할 때 천지는 제 위치에서 일하고 만물은 왕성하게 자라나게 된다.” (『중용』의 자연과 인간의 협업에 관한 사유, 『양명학』 65집, 한국양명학회, 2022, 248쪽.)

Ⅲ. 충서(忠恕): 뚫린 마음에 기초한 씨알 사랑

■ 앞 절에서는 류영모가 중용 개념을 하느님 내지는 열 생명에 잇대어 사는 것이라 새롭게 해석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임을 『중용 강의』 곳곳에서 역설한다.

그이(君子)에게 줄곧 뚫림(中庸)이란 그이이므로 때로 뚫음(時中)이요.*

‘군자’를 ‘그이’라고 개칭한 까닭은 류영모가 ‘군자’를 하늘로부터 덕(德), 그의 개념으로는 열 생명을 선천적으로 품수한 ‘하느님의 아들(天子)’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류영모는 『논어』 「술이」의 하늘이 부여한 덕을 ‘얼나’라 번역했다.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나를 낳아주셨다(天生德於予).”** 다만 ‘천자’라는 호칭이 전통적으로는 ‘황제’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수신하는 ‘군자’에 ‘하느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그이’라는 번역어를 선택했다. 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에게 ‘하느님의 아들’은 주류 기독교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그는 『다석일지』에서 ‘예수(茲克)’라는 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한웅로 머리를 둔 나는 한웅님만 그리워한다. 나 일어섬이 기(氣)이므로 오직 하나이신 임을 머리에 인다.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54쪽.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 류영모, 위의 책, 13쪽.

섬김으로 세우신 사명, 그리스도를 기르는 영원한 생명.”* 류영모가 하느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웅님’이라는 말을 즐겨 쓴 것은 그것이 ‘하나의 크시고 한결같은(한)’, ‘저 초월적인 위와 내 마음 안에 계신(웅)’ 인간이 ‘머리에 이듯 받들어야 할 임(님)’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웅님’의 ‘웅’은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그 모양이 똑같다.”** 하느님이 초월적일 뿐 아니라 내재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한글로 훌륭하게 형상화한 글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느님이 ‘얼’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 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표제어 ‘예수’ 괄호 안에 붙은 한자가 ‘여기(예, 茲)’ 내 마음 안의 ‘얼’의 힘으로 ‘이겨냄(克)’을 뜻한다는 것도 이 점을 알려준다.

이같이 류영모는 유교 경전인 『중용』에 기독교적인 하느님을 끌어들이었지만, 동시에 유학적인 하늘이 부여한 ‘덕성’ 개념에 근거해 하느님의 보편 내재성을 크게 강조했다. 이에 그에게 그리스도가 됨, 즉 구원이란 내면의 하느님인 얼과 ‘줄곧 뚫리는’ 수신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그리고 ‘얼과 줄곧 뚫려’ ‘수시로 뚫음(時中)’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마음을 거룩한 생각의 ‘바다’로 가득 채우는 일을 뜻한다. “현재를 깊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자꾸 나와야 한다. 영원한 생명(얼나)이 있다는 것을 미신적으로 망상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 『다석일지』, 1961년 6월 3일 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한웅로 머리둔 나는 한웅님만 그리웁기. 나섬이 기므로 오직 하나이신 님을 니기. 섬김에 세우신 목숨 그리스도 기름 길.”

** 김진, 앞의 책, 38쪽.

자꾸 흘러나와서 사상(思想)의 바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얼의 바다, 얼의 나라를 믿는 것이다.”*

그는 이 거룩한 생각의 바다를 이루는 내적인 훈련을 홀로
하는 것이 고단하지만, 인생의 참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다
음 구절을 해석할 때 피력했다.

그이(君子) 줄곧 뚫린(中庸) 대로만 해야 누리에 뒤 밀리어 알
람을 보지 못하여도 뉘웃지 않는 것은 오직 씻어낸 이(聖者)가 할
수 있다.**

늘 얼 생명과 연결되어 거룩한 생각을 받아 떠올리는 일에
전념함은 사회적 인정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즉 세속의
욕망을 씻어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풀이이다. 나아가
그는 사람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하여 정신적으
로 참 기쁨을 느끼려면 적극적으로 은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상에 나타나려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라. 숨으면 숨을수록 더 기
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
르려는 사람은 깊이 숨어야 한다.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
고 훈련한다는 것이다. 훈련에 훈련을 통하여 사람은 도(道)에 이
르는 것이다.”***

* 박영호 엮음, 『다석 류영모 어록』, 울리브나무, 2019, 68쪽.

** 류영모, 『다석 증용 강의』, 102쪽. “君子依乎中庸，遯世不見知而不悔。唯聖者能之。”

***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비록 고독한 은둔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지만,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중용』의 충서(忠恕)에 대한 해설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곧은 마음(忠)과 푸는 마음(恕)이 길과 버숨(違)이 멀지 않으니
라. 내게 싫은 것은 남에게 말지니라.*

‘충’을 ‘곧은 마음’이라 풀이한 것은 ‘중용’을 ‘줄곧 뚫림’이라 번역한 것과 긴밀히 연관된다. ‘줄곧’ 역시 다의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얼 생명과 ‘늘’ 뚫려 있다는 뜻이지만 사람이 곧은 마음(곧)으로 ‘얼 생명줄(줄)과 곧게(곧) 뚫려 있다’는 뜻도 있다.** 충은 얼 생명과 줄곧 곧게 연결되어 올곧은 생각을 하는 마음이다. 서(恕)는 이 얼 생명에 잇댄 올곧은 마음을 바탕으로 ‘너’와 ‘나’의 분리된 경계를 푸는 마음, ‘너’의 고통을 추체험해 ‘너’에게 괴로운 일은 절대 강요하지 않는 마음, 즉 이웃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다.

그는 이 얼 생명, 같은 의미이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중용』 6장의 “그 바로 뚫림을 백성에게 쓴다(用其中於民)”는 구절

* 류영모, 위의 책, 122~123쪽. “忠恕違道不遠. 諸己而不顧, 勿施於人.”

** 『다석일지』에 자주 등장하는 ‘고디’라는 말에서도 이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흙 한 줌이 땅 드디며 한늘 뚫려 갈 길 올라 아래 웅로 누릴 나위 샅틈 없을 제 바탈은 월출이 한늘 웅알로 제고딘가 하노라.”(1961.2.5.) 쉽게 풀이하면 이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다. “흙 한 줌인 사람이 땅을 디디고 하느님에 뚫려 갈 길 올라간다.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부터 주어진 재능의 물 샅 틈 없이 제대로 된 바탈은 외로이 홀로 하늘 위아래로 오르내리니 제대로 된 고디인가 하노라.” 이 시에서의 ‘고디’를 정양모는 ‘올곧은 사람(真人)’이라 해석했다. (류영모 지음, 정양모 주해, 『다석일지 2』, 길, 2025, 261쪽.) 이 해석을 참조하면 유자들이 지향하는 ‘올곧은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얼 생명에서 솟아 나오는 올곧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을 설명할 때 박영호는 류영모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이 씨알(民)을 위함이 하느님 위함이다. 이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백성을 모른다 하면서 하느님만 섬긴다 함도, 하느님을 모른다 하고 백성만 위한다 함도 다 거짓이다.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가 되어서 처음부터 마음이 민주가 되어야 한다. 씨알이 나라의 임자가 된 것은 천의(天意)요 천도(天道)이다.”*

백성을 씨알에 비유한 까닭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백성들이 다 하느님의 일을 내재해, 자연에서 생명이 씨의 껍질을 벗고 속알이 나오듯, 백성들도 그 일을 자각해 거룩한 생각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일을 내재한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백성을 위하는 행위가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 일 생명에서 샘솟는 올곧은 생각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거짓된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중용』은 유학의 경전답게 백성을 위하는 통치자의 정치 활동 원칙을 적지 않게 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경(九經)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관계의 친소와 원근에 따라 친족을 친하게 대하고(親親), 멀리 있는 이들은 부드럽게 대한다(柔遠人)는 원칙 등도 포함되어 있다. 류영모는 박애의 정신과 백성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에 크게 찬동했던지라, 유학의 이런 통치 원칙에 불만을 느끼고 이를 비틀어 설명한다. “친근한 이를 공경히 대접해야 한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71쪽.

다. 자기 자식이라도 공경해야 한다. 함부로 자식 소리 해서는 안 된다. 공경이란 조심이요 어려워함이다.”*

친족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자식 공경을 언급한 것은 유학의 서열주의에 대한 비판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또 말했다. “멀리 있는 이도 애중히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느님을 찾는 근본이다. 저 아프리카놈, 저 일본놈, 저 야만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도 제 부모에 효하고 제 형제한테 우애해봤자 소용없다. 크게 앉아보면 원근, 친소가 없다. 그렇다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관계의 원근과 친소가 애정의 깊이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 없으나 될 수 있으면 두루 사랑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류영모는 유학자들이 정치적 관심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이 지나치게 높은 데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 비판적이었다. 그는 『중용』 3장을 “이(子) 가로되 길(道) 그 가치를 못할까 보다(子曰, 道其不行矣夫)”라고 번역한 후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회의적 시선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이 세계는 말기다. (그만두라는 것이다.) 애초에 최초(하느님)의 의지가 조금 하다가 말자고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말라, 말자 하려고 나온 거다. 이 세계는 소극적으로 생긴 거다. 자꾸 변성해 나가자고 있는 게 아니다. 마침내는 말자고 생긴 세상이다. 어떤 결과를 보자고 된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들 듯

* 류영모, 위의 책, 246쪽.

** 류영모, 위의 책, 246~247쪽.

이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다.*

인류 문명 세계에 대한 그의 위 진단에는 기독교적 말세 사상과 노장철학적 무위자연 사상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인류의 물질문명은 갈수록 풍요롭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탐욕의 산물로 하느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그런 탐욕적 행위를 그만두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미 도(道)가 땅에 떨어졌다고 탄식할 정도로 암담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류영모의 생애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비관적이었다. 다만 이따금 터져 나오는 민족과 민중의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는 이 세상은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는 이 세상이지만, 혹 되는 듯하면 참 기쁘다. 하룻밤 자고 가는 데일지라도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나도 펍 복을 느낀다. 흠으로 된 이 세상인 이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8.15 광복을 맞아 나도 참 복이 있다고 느꼈다. 또 4.19 학생 의거가 톱 터져 이것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쾌한 꼴을 두 번이나 보게 되나 하고 펍 기뻐하였다. 민중이 민주주의 시민이 된 것을 감격스레 생각해야만 참 민주주의가 된다.**

* 류영모, 위의 책, 66쪽.

** 류영모, 위의 책, 214쪽.

한편, 류영모는 유학의 가족주의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중용』 15장에서 인용한 『시경』 구절을 “아내와 아들이 잘 모던 것이 거문고나 비파 치는 듯하며, 언니 아우를 서로 맞아 고루 좋아하니, 너희 집안 참 좋고 안팎으로 참 즐거워하는구나”^{*}라고 번역한 후, 세상 사람들은 가정의 살림살이에 연연하지만, “예수와 석가는 가정에 간혀 살지 않고 하느님의 속인 무한대에서 살았다”^{**}고 하여 예수와 석가의 출가(出家)에 찬탄했다. 심지어 공자도 후대 유자들과는 달리 가정의 틀에 갇히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은 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애쓰고 고생하며 생각하는 데서 철이 나고 속알이 영근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공자도 살아서는 섬길 임금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느라고 앓은 자리가 더워질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공자는 집에서 밥 먹은 때가 없었다. 밤낮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人間智)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인용문의 ‘나그네’라는 말을 류영모는 다의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위의 구절에서처럼 단순히 집을 떠난 과객(過客)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 허공에서 와서 이생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라는 뜻도 있다. 그밖에 나그네는 ‘나는 그분, 즉 하느님에게 속한 자’라

* 류영모, 위의 책, 147쪽. “妻子好合, 如鼓瑟琴, 兄弟既翕, 和樂且耽, 宜爾室家, 樂爾妻孥.”

**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 류영모, 위의 책, 같은 곳.

는 뜻도 있다.* 가정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나그네)’으로 덕성이 성숙해 간다는 뜻이다. 과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렇게 ‘나그네’처럼 열국에서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생각이 영글어갔다.

비슷한 이유에서 그는 유교의 어버이에 대한 효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효도로 비틀어 해석하였다.

이(子) 가로되, 무왕과 주공은 그 사무친 어베이(孝)였다.**

공자를 ‘이’라 표기한 까닭은 한글 기본 모음 ‘ㅣ’가 하늘(丿)과 땅(ㅡ) 사이에서 땅을 발로 딛고 곧게 서서(丨)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줄곧 하느님과 연결되어 올곧게(1) 살아가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올곧은 공자가 무왕과 주공을 ‘사무친 어베이’라고 했는데, ‘어베이’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베임’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 말은 예수가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 한 몸 헌신했듯, 하느님의 아들들인 인간 역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 헌신해야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께 ‘상달하는 효(達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하느님에 대한 효를 류영모는 ‘효의 근원(元)’이라고 했다. “몸과 마음, 아버지와 어머니, 하늘과 땅, 신명은 상제로부터 받은 것이니,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음이 효의 근원

* 『다석일지』 1955.10.16. “나그네, 나는 그 님의 것. 그집네. 나는 그집의 부치이었다.” ‘나그네’란 나는 그 임의 것이고, ‘그집네’란 나는 그 집에 붙어사는 이였다는 뜻이다.

** 류영모, 『다석 증용 강의』, 190쪽. “子曰, 武王周公, 其達孝矣乎.”

이다. … 효는 하늘을 섬기는 데서 근원이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되며, 중간에는 공적인 일에서 사용되며, 중국에는 몸을 세워 소명을 확립하는 데서 극한에 이른다.”*

천지간 모든 생명은 하느님에게 근원을 두고 있으니, 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효 역시 하느님에 대한 효에 그 관념적 뿌리가 있으니, 효는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하더라도 중국에는 하느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소명을 다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류영모는 인륜이나 통치 원칙을 논하는 『중용』의 구절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하느님의 열 생명과 잇대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차대한 일로 여기고, 이 훈련을 토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유학의 정치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가족주의적 편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 『다석일지』 1955.5.2. “心身父母天地神明은 受之上帝니 不可不誠敬함이 孝之元也라. … 夫孝는 元於事天하고 始於事親하며 中於使公하고 終於立身하여 極於立命하니니라.”

** 강진석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부자유친(父子有親)을 논할 때 위 『일지』의 구절을 인용하고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천(事天)으로부터 사친(事親)의 진정한 의미가 열리고, 사친에 머물지 말고 내 삶을 신의 형상을 드러내는(體道) 지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은 ‘천인관계(天人關係)’의 체계를 도입하여 ‘부자유친’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부자유친의 도리는 신인관계(神人關係)로써 환기시킬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가 열린다.” (강진석, 「다석 류영모의 동서양 회통 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17집, 동양철학연구회, 2024, 53쪽.)

Ⅳ. 성(誠): 하나님의 참과 자연의 성실

■ 주지하듯 성(誠)은 ‘중용’과 더불어 『중용』의 전체 사상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키워드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성(誠)에 관한 류영모의 주요 생각을 검토하여 그가 여전히 신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성을 논하였지만, 『중용』이 본래 담고 있는 자연과 인간의 협력과 조화에 관한 일종의 생태학적 사유의 내용에 충분히 주목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밝히겠다.

참(말, 誠)이란 하늘 길이요, 참(말)을 하는 것이란 사람의 길이니.*

성(誠)이라는 글자를 파자해 보면 그것에는 ‘말을 이룬다’는 뜻이 있다. 인간 사회는 언행 불일치로 인해 거짓이 횡행한다. 그에 반해 하늘은 주자가 그렇게 풀이했듯 진실무망(眞實無妄)하다.** 류영모가 성에 관한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 까닭은 무엇보다 그것이 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묘사와 절묘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그는 하느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264쪽.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 『中庸章句集註』, “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 未能眞實無妄而欲其眞實無妄之謂, 人事之當然也.”

***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기록은 『성경』 곳곳에 보인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7:9) 박영호도 『중용』의 ‘성’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느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느님이라는 뜻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280쪽.)

님이 걷는 길(天道)은 ‘참’이라 번역하고 괄호 안에 ‘말’이라는 말로 부언하였다. 하느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그 진리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뜻이다. 하느님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이 참을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참(誠)은 하느님을 말한다. 참(誠)은 하늘이다. 이 참을 하려는 것이 사람의 길이다. 참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참을 그리워해야 한다. 참은 하늘의 길ियो, 참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갈 길이다.”*

인간만이 참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 류영모는 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하느님과 더 높은 수준에서 소통하고 합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지성(至誠)의 인간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얼(靈)이 통하는 것, 절대 존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엉큼한 일은 없다. 사람은 절대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얼(靈)이 커져 엉큼해진다. 하느님과 영통(靈通), 내통(內通)하는 엉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과 영통하고 내통하면 우리의 영혼이 커진다. 정신이 커진다. 인격이 커진다. 속알이 커진다.”**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해 하느님과 얼이 통하여 거룩한 말씀이 내면에서 샘솟는 일을 그는 ‘엉큼한 일’이라 했는데, ‘엉큼함’이 어원적으로 ‘엉김’과 ‘커짐’이라는 뜻이 있음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의 ‘엉큼함’이란 하느님의 얼과 내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엉김’으로써 인간 자신의 얼이 ‘커짐’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의 행위는 내밀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식 보

* 류영모, 위의 책, 265쪽.

** 류영모, 위의 책, 286~287쪽. 『다석 어록』에는 ‘엉큼한’에 ‘Mahatma’라는 말을 덧붙여 ‘엉큼한 사람’이 ‘위대한 얼의 사람임을 뜻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나란 하느님과 얼로 통하는 영통(靈通), 내통(內通)한 엉큼한(Mahatma) 사람이 돼야 한다.” (박영호 엮음, 『다석 류영모 어록』, 95쪽.)

듯 귀엽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큼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중용』에서는 지성(至誠)의 인간이 되는 방법으로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을 제시했는데, 류영모는 그 구절을 “넓히 배우고 살살이 묻고 삼가 생각하고 밝히 가르고 도탑게 할 노릇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학문(學), 사유(思), 실천(行)을 중시해 그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며 각각에 대한 자신의 중요한 관점과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널리 배우는 일(博學)과 관련해 그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종교 혹은 종교성을 띤 사상 간의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다.

알긴 무엇을 아는가.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예수교 믿는 사람은 유교를 이단시하고,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예수를 비난하고 유교를 나쁘다고 한다. 유교에서는 불교, 기독교를 욕지거리하고 무엇을 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남을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 자기가 그이(군자)가 되려면 다른 그이(군자)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참 멍텅구리 시대이다.^{**}

류영모에게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 간 배움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둘러싼 궁극적 관심에 나름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생명의 근원이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포함한 여러 종교적 문제에 대해 인간은 다 알 수가 없고, 어떤 특정 종교도 자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267쪽.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 류영모, 위의 책, 268쪽.

신의 교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해 어느 종교도 자신의 교리만이 참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없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허심탄회한 자세로 상대에게서 배움으로써 종교적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더욱 풍부화하는 데 있다. 그런 종교 혹은 종교성을 띤 사상 간 대화가 유익할 수 있음을 그는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다.

우리 둘은 이제 꼭 같은 한 가지다. 다음다음까지 한 가지다. 둘이 하나 된다고 함은 이제 날 아이 두고 한 말. 가지는 가지치기 하도 하니 안 한 가지로 여긴다.*

서로 다른 종교 사상이 ‘한 그루의 생명나무’ 즉 하나의 열, 하나의 진리에서 갈라져 나왔으니, 이 다른 종교 간에 대화와 소통을 충분히 하면 ‘아이를 낳듯’,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동양에서는 근대 이후에 종교 간 대립이 극심한 모순으로 치달아 배타적 태도로 상대를 비난해 왔다. 류영모 이런 현실을 심히 개탄하며, 자신부터 기독교, 불교, 유교, 노장사상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종교 사상의 회통에 크게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으로 삼가 생각함(愼思)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차례 논했듯 열에 힘입어 거룩한 생각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다석일지』 1968.11.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두린 인젠 꼭 한 가지 담담까진 가지. 둘이 하나 된 담은 인제 날 아이 두고 한 말. 가지는 가닥지 치기 하도 하게 안 한 가지로.”

생각은 우리의 바탈(性)이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른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다. 생각이라는 바탈을 태우려면 마음이 놓여야 하고 마음이 놓이려면 몸이 성해야 한다. 바탈은 생각이 밀천이 되어 자기의 정신을 불사르는 예술의 세계다. ... 나무에 불을 사르듯이 자기의 정신이 활활 불타올라야 한다. 바탈은 타지 못하면 정신을 잃고 실성(失性)한 사람이 된다.*

인용문에서 그는 거룩한 생각을 해 깨달음에 이르는 행위를 열을 불사르는 예술적 행위라 말한다. 삶의 매 순간 거룩한 생각을 하는 데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불사르는 숭고한 행위인 것이다. 이런 헌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정신을 상실한(失性) 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답게 실행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영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도답게 할 노릇(篤行)’이란 탐, 진, 치의 속성을 지닌 제나를 부정하고 열나를 받들어 지, 인, 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향하여 끌고다 언덕길 같은 인생길을 살아 나가는 것이다. 제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독행(篤行)이 아니라 경거망동(輕舉妄動)이다.”** 류영모에게 실천이란 내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탐욕, 성냄 등을 제거하는 수행이고,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용기의 덕을 발휘하며 생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이 두 방향의 실천을 통해 ‘끌고다 언덕’ 같은 갖가지 삶의 고난을 결국은

* 박영호 엮음, 『다석 류영모 어록』, 64쪽.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270~271쪽.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상과 같이 류영모는 하늘의 ‘성’을 하나님의 참됨으로, 인간의 ‘성(誠)’ 되려는 노력을 열과 잇대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배움, 사유, 그리고 생활 실천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그는 전통 유학의 천인 관계론을 기독교적 신인 관계론으로 재해석했다. 그런데 『중용』에서는 하늘이 인간하고만 연결된 것은 아니다. 하늘은 만물의 근원, 생명의 뿌리이자, 만물이 내재한 가치의 근원이기도 하다. 아래 해석을 보면 류영모도 이 점을 인정함을 알 수 있다.

참이 몬(物)의 마침과 비롯이니 참이 아니면 몬은 없다.*

하느님의 열은 참되다. 따라서 하느님의 열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 운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 만물 안에 내재할진대, 열의 참된 가치 또한 만물에 내재한다. 만물에는 모두 참된 가치가 있다. 류영모는 이 점을 직접 이렇게 설명했다. “성(誠)은 말쑥인데, 곧 ‘참’이다. 참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끝이다. 참이 없으면 다 없다. 참이 들어가면 그 물건이 살고 참이 나오면 그 물건이 죽는다. 참은 모든 상대적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류영모에게 피안과 차안,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 열 생명과 자연 생명 사이에는 비교적 작지 않은 ‘틈’이 있다. 이 점은 그가 『중용』의 하늘을 하느님으로 재해석

* 류영모, 위의 책, 296쪽. “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 류영모, 위의 책, 280쪽.

해 그것에 지고무상한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땅과 그 위에서 살아 가는 자연 생명의 가치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늘땅의 길은 한마디로 다하리니 그 몬 됴이 둘이 아니면서 곧 그 몬(物)의 낱음은 헤아리지 못하리로다.*

유학에서 하늘(天)은 상제와 흡사하게 만물의 주재자로 이해될 때도 있지만, 땅과 결합하면 만물을 생육하는 자연 천의 의미를 띤다. 그런데 류영모는 하늘이 ‘자연 천’의 의미를 띤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천지(天地)라는 말이 쓰인 경우, 하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특별한 설명이 없다. 제자 박영호는 아예 ‘천지의 도’를 절대자 하느님과 상대적 세계의 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위 구절을 “하느님이신 참(誠)이 상대화하여 몬(物)이 되지만 참과 몬이 근원에서는 모두 참(誠)으로 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지만, 『중용』 본래의 뜻과는 크게 다르다. 물론 하늘을 천체(天體)로 해석한 경우도 있다.

이제 그 하늘이란 이 밝고 밝음의 많음인데, 그 끝없음에는 해 달 별이 매여 달렸고 잘몬(萬物)을 덮었구나. 이제 그 땅이란 한 줍 흙의 많음인데 그 넓고 두텁에는 화악(華嶽)을 싣고도 무거워 앉

* 류영모, 위의 책, 311쪽. “天地之道, 可一言而盡也. 其爲物不貳, 則其生物不測.”

** 류영모, 위의 책, 312쪽.

고 물과 바다를 거두어 새지 않고.*

이 구절은 본래 하늘과 땅이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존재와 생명체의 생존에 터전이 되어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류영모의 해석도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잘 반영한 듯하다. 그래서인지 박영호는 이 구절의 해설 끝에 류영모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한다. “하늘이라는 무한한 허공에 무수한 별들이 가득 차 있다. 이 천지자연이 모두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글월(文章, 편지)이다. 옛날의 석가와 예수, 가까이 에머슨과 간디는 이 글월을 바로 읽었다. 이 하느님의 글월을 바로 읽으면 이승에서 익힌 먹고 싸는 짐승 버릇을 끊게 된다.”** 동양의 옛 성현들이 자연을 무자천서(無字天書)라 했듯, 류영모도 우주, 자연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겼다.

그러면 하느님이 천지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아래 두 단락은 그 메시지에 관한 류영모의 기본적인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주 빈 절대공(絕對空, 하느님)을 사모한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의 허공이라야 참(眞, 하느님)이 될 수 있다. 허공은 무서운 것이다. 허공이 참인 하느님이다. 허공 없이 진실이고 실존이고 어디 있는가? 허공이 없으

* 류영모, 위의 책, 315~316쪽. “今夫天, 斯昭昭之多, 及其無窮也, 日月星辰繫焉, 萬物覆焉. 今夫地, 一撮土之多, 及其廣厚, 載華嶽而不重, 振河海而不洩, 萬物載焉.”

** 박영호 엮음, 『다석 류영모 어록』, 35쪽.

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다. 허공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꽃을 볼 때 대개는 꽃 테두리 안의 꽃만 보지 꽃 테두리 걸인 변두리의 빈탕(허공)에는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꽃을 있게 하는 것은 허공이다. 나에게서 요새 와서 허공이야말로 가장 다정하게 느껴진다.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허공은 참이라, 곧 하느님이다.**

위 두 단락에는 류영모의 우주관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우주를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칭한다.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듯, 하느님의 ‘얼’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주에서 주목한 것은 빛나는 태양이나 별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둘러싼 허공이다. 이 허공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위 두 단락은 말하고 있다. 하나는 두려움이다. 마치 하느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듯 캄캄한 우주는 무섭게 느껴진다. 그런데 이는 우주의 한 면일 뿐이다. 이 우주의 캄캄함이 없다면 빛나는 별들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꽃도, 숲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우주는 만물을 빛내기 위해 자신을 어둡게 하여 빈자리를 만물에 내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우주를 다정하게도 느낀다.

류영모는 땅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따금 발언했는데, 땅의 가장 큰 가치 내지는 의미는 몸 생명을 살리는 밥을 농부와

* 박영호 엮음, 위의 책, 45~46쪽.

** 박영호 엮음, 위의 책, 54쪽.

협력해 생산해 내고, 이를 통해 인간의 몸 생명을 길러준다는 데 있다.

닫고 서 있는 땅과 몸에서 스며 나오는 땀은 우리 밥맛을 내게 하는 데 바쁘다. 땅과 땀이 바빠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입맛과 밥맛을 내는 데 서로 내기하는 것 같다. 땅이 우리 밥맛을 내주는지, 땀이 우리 밥맛을 더 내주는지, 밥맛을 좇기 때문에 땅 파는 데 땀을 많이 흘려야 할지, 도무지 서로 내기를 하는 것 같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요 밥그릇인데 그렇게 보는 이는 없고 모두가 팔어먹을 상품으로 본다. 땅을 어머니로 모시고 밥그릇으로 보는 겸손한 이가 마침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어머니로 밥그릇으로 아는 이는 놀지 않고 부지런히 힘써 일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한다.**

땅과 농부가 ‘내기하듯’ 일하며 우리의 밥맛을 책임지는 먹거리를 생산한다. 땅의 가치는 바로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밥을 값없이 제공해 준다는 데 있다. 밥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이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였으므로, 전통 사회에서 땅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겸손히 사랑할 존재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류영모는 땅에 대한 공경(敬地)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 박영호 엮음, 위의 책, 283쪽.

** 박영호 엮음, 위의 책, 같은 곳.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류영모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땅보다는 하늘을, 자연물보다는 인간을, 몸 생명보다는 영 생명을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그의 생명 사유가 충분히 ‘생태적’이지는 못하다. 그의 생명 사유에는 땅과 몸이 속한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계신 절대 세계로 초극하려는 탈속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여기: 상대계)에 붙은 것이 아니다. 예는 아무리 좋아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계(거기: 절대계)에서 예(此岸)로 잠깐 출장을 온 것이다. 계(彼岸)로 가려면 맘을 비워야 한다.*

『중용』의 성(誠)에는 본디 성실하다는 뜻도 있다. 천지 만물의 생명 운동 및 이와 상응하는 인간의 활동을 논할 때 쓰이는 성(誠) 개념은 성실함으로 풀 때 그 본뜻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아쉽게도 류영모는 탈속적 경향이 강하여 성(誠)을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명 운동으로 풀이하지는 않았다. 이 또한 그의 『중용』 풀이 속 생명 사유가 충분히 생태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방증이다.

V. 맺음말

- 본문에서는 류영모의 기독교적 『중용』 해석의 주요 내용과

* 박영호 위음, 위의 책, 60쪽.

특징을 살펴보고았는데, 이를 통해 파악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중용’을 하느님의 ‘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의 신인합일(神人合一)적인 의미를 강화했다. 나아가 그는 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상을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생활의 훈련을 은거해서 하되, 이웃 사랑의 실천 또한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충서(忠恕) 개념의 재해석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근대적인 민주와 기독교적인 박애의 정신으로 구경(九經)이나 효(孝)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밖에 그는 『중용』에서 말하는 하늘의 성(誠)과 인간의 지성(至誠)도 하느님의 ‘참’과 그에 합일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영적 훈련으로 해석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중용』이 본래 포함한 자연 생명에 대한 사유의 생태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문의 서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류영모의 기독교적 『중용』 해석이 종교 혹은 종교성을 띤 사상 간 대화의 측면, 생명 사유의 측면, 그리고 생태적 사유의 측면에서 각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히 논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류영모의 기독교적 『중용』 해석은 하늘을 하느님으로, 천인합일을 신인합일로 해석함으로써 유학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던 종교적 성격을 상기시키고, 유학의 성(性)을 얼로, 중용을 그 얼에 잇대는 일상의 행위로 해석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자율적 종교 수행의 성격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익한 가상 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지하듯 종교 혹은 종교성을 띤 사상은 그 믿음의 절대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상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

기가 특별히 더 어렵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언급했듯 생명의 근원, 궁극적 실재 등에 대한 인간의 인식 가능성이 본래 제한적임을 솔직히 인정한다면, 종교나 종교성을 띤 사상은 자신의 신앙 혹은 신념에 절대적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교리 전체가 다 완전무결하다는 오만한 생각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겸손한 태도로 다른 종교 사상과 대화한다면 적지 않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진지한 사상적 학문적 대화의 목적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타인에게서 장점을 취하는 데 있음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류영모의 기독교와 동양 사상의 회통은 그러한 유익한 대화의 전범을 보여준다.

둘째, 류영모는 열 생명의 영원함, 참됨을 몸 생명의 필멸성, 자기중심성을 부단히 대비시켜 열 생명의 지고무상한 가치를 부각하고, 몸 생명이 쉽게 탐욕으로 치닫는 경향을 극도로 경계하며 몸과 마음을 하느님 섬김과 이웃 사랑에 선용할 것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그의 생명 사유는 종교 사상적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개체 생명으로서 반드시 사멸할 운명에 있고, 인간은 이를 뚜렷이 의식하는 존재인 한, 개체 자아를 비롯한 삼라만상의 무상함을 인정하고, 그에 반해 우리 생명의 뿌리인 영원한 그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몸, 땅 위에 사는 생명체, 하나뿐인 지구 등이 신성하고 소중하다 해도 언젠가 ‘나’도 몸을 벗고, 지구를 떠나야 함을 생각할 때, ‘나’에게 실존적으로는 정신 생명, 무궁한 우주 등에 더 큰 의미가 있음도 분명하다. 이 정신 생명을 부단히 자각함으로써 생각과 삶을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일 것이다.

셋째, 류영모의 생명 사유는 유학의 수신(修身) 관념, 천지(天地)를 부모에 빗대어 그것을 공경하는 관념의 영향, 그리고 그 자신의 농사 체험 등으로 인해 생태적 사유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생태 철학적 의의가 있으나, 앞서 본문에서 여러 차례 논했듯 다소 지나친 탈속적 경향으로 인해 몸, 땅, 밥 등의 신성한 의미와 그 생태적 얽힘 속 협력과 공생의 질서를 충분히 깊이 사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용』과 같은 정통 유학의 대표적 고전에서 그런 생태적 사유의 단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아쉬움은 더욱 크지만, 이 역시 그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20세기 60년대까지의 시대적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그 시대는 아직 생태적 위기가 이 땅에서 본격화하지 않았을 때였다.

참고문헌

- ◆ 김홍호, 『다석일지 공부』, 전 7권, 솔, 2001.
- ◆ 류영모, 『다석 중용 강의』, 박영호 풀이, 아로파, 2024.
- ◆ 류영모, 『다석일지』, 전 3권, 정양모 주해, 길, 2025.
- ◆ 박영호, 『다석 류영모 어록』, 올리브나무, 2019.
- ◆ 朱熹, 『四書章句集註』, 中華書局, 2021.
- ◆ 김진, 『다석 류영모의 종교사상』, UUP, 2012.
- ◆ 김홍호·이정배 등,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동양적 기독교 이해』, 솔, 2002.
- ◆ 박영호, 『다석 류영모: 우리말과 우리글로 철학한 큰 사상가』, 두레, 2009.
- ◆ 유대철, 『대한민국 철학사』, 이상북스, 2020.
- ◆ 이규성, 『한국 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2.
- ◆ 이정배, 『빈탕한테 맞춰 놀이』, 동연, 2011.
- ◆ 이준모, 『종교생태학』, 문사철, 2012.
- ◆ 장일순,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삼인, 2003.
- ◆ 전호근, 『한국철학사』, 메멘토, 2015.
-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2015.
- ◆ 강진석, 「다석 류영모의 동서양 회통 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17 (2024), 39~72쪽.
- ◆ 황종원, 「『중용』의 자연과 인간의 협업에 관한 사유」, 『양명학』, 65(2022), 221~254쪽.

인간연구 제57호 겨울



Ryu Young-mo's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of the Mean*: Focusing on the Problem of the Philosophy of Life

Hwang Jong-won

(Professor · Philosophy · Dankook University)

Chi, Chun-ho

(Professor · Philosophy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ain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odern thinker Ryu Young-mo's (1890~1981)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of the Mean*, and to explore its religious and philosophical significance with a focus on the problem of life thought. Ryu understood "the Mean" as referring to the state in which human beings live in communion with the "Spirit" of God and act according to the divine will. He emphasized that individuals should cultivate

a life filled with sacred thoughts through spiritual training in seclusion, though this did not mean neglecting love for one's neighbors. He presented this idea as a reinterpretation of the Confucian concept of zhongshu (忠恕, loyalty and empathy). Furthermore, he critically reinterpreted such notions as the nine classics (九經) and filial piety (孝) in the *Doctrine of the Mean* from the perspectives of modern democracy and Christian philanthropy. Moreover, he understood the "sincerity of Heaven" (天之誠) and the "utmost sincerity of human beings" (人之至誠) as God's "truth" and the human's unceasing spiritual cultivation directed toward union with it. However, his interpretation failed to fully recognize the ecological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of the Mean*'s original reflection on natural life.

Keywords: Ryu Young-mo; *Doctrine of the Mean*; Spirit, Sincerity; Interreligious Dialogue; Philosophy of Life; Ecology